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난세의 영웅들, 송가인과 봉준호, 진중권과 윤석열

2월 9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 엔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 감독상·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까지 오스카 트로피 4관왕이 되었다.

92년 아카데미의 역사가 뒤집혔다. 백인 위주의 미국 영화, 백인 영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아카데미상을 비(非)영어권 영화가 휩쓰는 놀라운 기록을 이루었다.

한국 영화 102년 역사를 다시 쓰게 되었다. 아카데미 문을 두드

린지 58년만의 쾌거이다.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는 말을 했던 객석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 주었다.

나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서 미스트롯 송가인이 생각났다. 봉준호 감독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에도 결혼식 비디오 촬영 알바를 하기도 하고 쌀도 떨어지는 생활고에 쫓기는 무명(無名)의 서러움을 맛보았다.

지난 1월 26~28일,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뜻밖에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위 32.2%,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 10.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위 10.1%로 나와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

살을 에이는 추운 한 겨울 밤에도 수백만명이 광화문광장 촛불 집회에 쏟아져 나와서 외쳤던 공정과 정의가 촛불 혁명을 계승했다는 현 정부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을 주고 있다.

요사이 국민들의 눈에 띄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과 한 때 친구였고,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 중의 하나였던 그가 지금은 현 정권과 조국 등을 비판하는 선봉에 서 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뛰어난 언어 선택과 적절한 비유로 나타내는 능력은 흔히 볼 수 없는 사람은 아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적인 영화로 세계를 평정했다면, 송가인은 한(恨) 서린 판소리로 다져진 노래로 한국을 평정했다고 생각한 다. 영화와 대중 가요라는 문화예술의 힘으로 국경과 인종,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깨부수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진중권 전 교수가 주목을 받고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무언의 의미일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의에 목 말라 있다. 부정부패와 불의의 역사에 질리고 저항해서 극복하고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권력의 미움과 탄압을 받는다. 그러나 민초들의 사랑을 받고 역사의 승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권력과 민중과 역사의 관계는 미묘하다.

社 說

이 판국에 해외 연수라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의 봉쇄제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축제 시기가 임박한 광양대화축제와 해남 팥밭 축제는 이미 취소됐고, 4-5월에 있을 축제와 대형 행사들도 취소 여부를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국내외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남 지자체 공무원들과 군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연수를 진행했다.

이들은 각 방문지에서 해양환경청과 리스본관광협회 등을 들르기도 했으나 대부분 일정은 현지 대성당과 수도원, 포도농장, 고궁 등 관광지를 돌아다니는데 할애했다.

강행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해외로 떠난 날은 지난달 27일 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로 온 나라가 비상인 때다.

이들은 각 방문지에서 해양환경청과 리스본관광협회 등을 들르기도 했으나 대부분 일정은 현지 대성당과 수도원, 포도농장, 고궁 등 관광지를 돌아다니는데 할애했다. 이들이 사용한 예산도 공무원 1인당 500만원씩이며, 의장은 비즈니스석이 제공돼 1인당 1천200만원씩 들어 총 6천400만원의 주민 혈세가 연수 아닌 관광에 소모된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정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허비 말고 알차게

2020년을 새해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2월 초순에 접어들고 새해에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 삶의 한 순간도 허비하지 않겠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면 비슷한 결심을 한분들도 많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 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고 열정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 특히 청소년들은 쉽게 삶을 허비하게 된다. 걱정이 없어진다 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선택한 것은 바로 당신이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삶의 무대에서 펼쳐지

는 모든 상황은 당신이 선택했음을 자각해야 한다.

당신의 삶에서 겪는 모든 것이 당신이 선택했다는 것을 자각하여 확연히 깨닫지 못하고 후회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상한다면 더욱 후회할 일만 늘어날 터이니 이처럼 바보 같은 짓도 없을 것이다.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거울과 그것을 밑거름 삼아 현재를 더욱 알차게 살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하는 자세로 살게 되면 내가 할 도리만 다하며 살게 될 것이고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당당하고 떳떳하지만 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인생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하게 맞을 것도 아니다. 분수껏 사느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도록 운명 지원진 우리들이다.

새로운 2020년 2월이 시작되었다. 일년 동안 우리 앞에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해 달려 2020년을 보낼 때엔 누구도 헛되이 보냈어 라고 한탄하지 않기 바란다.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현장담당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